

### 3.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관계의 변화

한반도는 미중 경쟁 구도에서 지정학적 요충지의 성격을 여전히 유지

#### 한반도는 미중 경쟁 구도에서 지정학적 요충지의 성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

- 미중 간 경쟁이 본격적인 양국 간 안보경쟁으로 화할 경우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공간은 서태평양 지역임  
중국인 소위 제1도련 지역을 중시하고, 미국은 중국의 태평양 지역을 봉쇄하는 대만-한국-일본의 연결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
- 미중 양국은 한반도의 분단 구도 및 향후 변화 과정을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에 유리하도록 다양한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음
-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선진국 진입을 앞둔 정도로 발전한 모범적 발전 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좋은 평판을 유지해 옴. 미국은 동맹 전략의 성공 사례로 한국을 들고 있고, 중국은 향후 주변국 전략의 성공 사례로 한중관계를 상정하고 한국에 공들이기 외교를 하고 있음

미중 양국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비확산을 위한 강대국 협력의 관점에서 합의와 협력을 유지

#### 미중 양국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비확산을 위한 강대국 협력의 관점에서 합의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음

- 미국은 지구적 비확산 질서 유지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한편, 중국 역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미국 주도의 비확산 질서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도임
- 양국은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향후 변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음
- 북핵 문제가 북한 문제 전반과 연결되어 있고, 이는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되므로 북핵 문제 넘어 사태 진전에 미중은 예의주시하고 있음

한반도의 통일 여부와 통일 한국의 외교적 지향은 미중 양국의 핵심적 고려 사항

#### 한반도의 통일 여부와 통일 한국의 외교적 지향은 미중 양국의 핵심적 고려 사항임

-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중장기적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한반도의 통일 전망이 현실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음
- 중국은 한미동맹이 유지되면서 중국과 접경하는 통일 한국의 출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현상유지를 선호하면서도 한국 주도의 통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그러나 동시에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이 예측 불가능한 모험주의 전략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 현상유지만을 추구할 수도 없는 상황임
- 미중 양국은 한국이 통일 이후 어떠한 외교적 지향을 보일 것인지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재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에서 어떠한 전략적 방향을 취할지 고민하고 있음

발행처: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홍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출판권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www.ajoucpa.com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 CHINA WATCHING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Ajou 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中國政策研究所

2015. 5. 25 <제4호>

## 미중 관계: 경쟁인가 협력인가?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정책 제언

#### 한미중 삼각관계의 외교 방정식 고안

- 미중 간 동아시아 외교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중 모두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외교는 점점 어려워질 것임
-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협력동반자 관계의 조화라는 담론을 제시해왔으나, 2014년 다양한 사안들의 전개 과정을 볼 때, 각 사안에서 일정 정도 미중의 불만을 불가피함
- 따라서 미중 간 경쟁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서 미중의 불만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도 명확한 자율적 입장을 제시해야 함. 한국은 미중과의 양자협력도 중요하지만 미중 간 경쟁을 협력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역 아키텍처, 다자주의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음

한국은 미중 간 경쟁을 협력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역 아키텍처, 다자주의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일 필요

#### 국력을 강화하는 중견국 외교

- 한국은 미중 간 경쟁이 군사적 충돌로 화하지 않는 지역체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지역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지역 보편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견국 외교라 할 수 있음
- 다른 동아시아 중견국들과의 협력,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외교, 강대국 간 갈등 해결의 촉진자가 되는 중견국 외교의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함
- 다른 한편 중견국 외교를 추진하면서도 미중 경쟁 구도에서 의미 있는 국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경제력과 군사력, 소프트 파워를 축적하는 현실주의 노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

다른 동아시아 중견국들과의 협력,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외교의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함

#### 대북 전략과 통일 전략, 동아시아 지역전략의 조화 추구

- 한국은 미래 북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한 준비와 주변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통일 외교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평화롭고 점진적인 통일을 현실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제재를 통해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정상화 비전을 현실화하는 대북 소통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 기존의 통일방안을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고, 외교적 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문제 제기

### 1.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의 현재와 미래

#### 미중 간 세력격차 감소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미중 간 노력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

- 미중 양국은 근대 국제관계에서 패권 세력전이가 전쟁으로 귀결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염두에 두고 군사적 충돌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고 있음
- 지구적 차원에서 미중 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초국적 이슈들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다양한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안보적 대립과 경쟁이 심각한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경쟁과 대립은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 미중 양국은 2013년 6월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양국 간 신형대국관계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의 핵심은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며 윈윈 게임을 하자는 원칙에 대한 합의임
- 원칙 합의 이후 북핵 문제, 사이버 안보 등 공통 이익이 두드러진 부분에서 신형대국관계의 강화 및 구체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 그러나 양국 간 신형대국관계 하 정합게임과는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을 자신의 편에 끌어들이려는 경쟁외교가 제로섬 게임의 형태로 진행되는 측면도 있음
- 중국은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고 자국이 계획하는 동아시아 국제기구에 국가들을 가입시키려고 노력하는 한편,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전략 하에 기존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많은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하고자 함

#### 미중 양국의 경쟁은 군사적 수단을 사용한 직접 경쟁보다 구체적 사안을 해결하는 규범과 제도를 둘러싼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중 양국은 핵심이익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한 단기 해결보다 해결의 원칙이 되는 규범과 제도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정비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소위 연성권력의 균형(soft balancing), 제도를 둘러싼 균형(institutional balancing)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부상해왔기 때문에 미국 질서에 직접 도전하기보다는 전체적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용을 자국 이익에 유리하도록 조성하는 외교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동시에 동아시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공외교에도 박차를 가함

미중 양국은 2013년 6월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양국 간 신형대국관계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미중 양국은 규범과 제도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정비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음

### 2. 향후 미중 관계의 전개

#### 2020년대 동등한 국력을 가진 미중 양국 관계의 출현

- 시진핑 정부는 향후 10년 간 7% 안팎의 경제성장, 내수 진작으로 인한 경제체질 개선, 국내 불평등 문제의 해결, 내부 부패 척결 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또한 10% 이상의 국방비 증가를 보이고 있고, 반접근, 지역거부의 군사전략을 추진하면서 전략무기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은 향후 10년 간 국방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입법적 제한 하에 놓여 있고, 아시아 뿐 아니라 지구적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패권국으로서 국력 소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2020년대 중반 아시아에 국한된 미중 간 세력은 팽팽한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높음

2020년대 중반 아시아에 국한된 미중 간 세력은 팽팽한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높음

#### 향후 10년 간 미중 관계의 전개 양상

- 미중 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상호 간의 핵심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2020년대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축적하기 위해 개별 사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빈번하게 벌일 가능성이 높음
- 미중 양국이 주요 분쟁의 초점이 되어 있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북한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직접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충돌 양상을 빚어내지는 않을 것임. 그러나 군비경쟁과 전략협력 대상을 늘리는 외교전은 지속될 것임

#### 10년 이후의 미중관계가 중요한 변화를 맞을 가능성도 있음

- 향후 10년 간의 미중관계는 현재의 추세로 예상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10년은 예측이 매우 어려움. 중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정치 민주화 여부, 경제 지속 성장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때, 2020년대의 미중 경쟁을 거치면서 어떠한 새로운 관계가 도래할지 알기 어려움
- 반면 미국은 향후 10년 간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발전을 유지하여 패권의 지위를 재강화할 가능성도 있음. 예를 들어 조셉 나이 교수는 국제정치학의 변화가 국가 간 하드파워 뿐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들을 포함한 권력분화(power diffusion)를 한 축으로 일어나고 있고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국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적 미중 관계의 여러 변수들이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주시를 하는 가운데 대처할 필요가 있음